

본당 소식

2024년 12월 교황님 기도지향 : "희망의 순례자들"

이번 희년을 통해 일상 생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가 희망의 그리스도인 순례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교무금 안내

- 올 한해 교무금을 납부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12월 안으로 미납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교무금액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12월 22일(대림 제4주일) 까지. 미사 시작 15분 전, 성전 교해소

♣ 대림 특강(대림 3,4주일)

- 강사 신부님: 서준성 펠릭스 신부님(로마 유학)
- 첫 특강: 차주(22일) 주일 미사 후, 지하 강당

♣ 12월 24일 성탄 밤미사 및 25일 낮미사 안내 ♣ 세례식 안내

- 24일 성탄 밤미사: 오후 5시, 오라토리오 - 12월 24일 성탄 밤미사 중.
- 25일 성탄 낮미사: 오전 11시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성경 통독)

- 대림 제4주까지 성경 통독 완료, 25일 성탄 대축일 낮 미사 때 시상합니다.

♣ 모임/회의

- 사목회의: 오늘(08일), 미사 후(Sala verde)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이승준 다니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16,9€ · 교무금 500,00€

전례 성가

입당: 481 (요르단 강에서)

봉헌: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체: 165 (주의 잔치),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전례 봉사

이번 주일(12월 8일)	다음 주일(12월 15일)
1독서: 이승준 다니엘	1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
2독서: 문형빈 샘	2독서: 김산영 올리아
복 사: 안태오 마태오, 정이한 다윗	복 사: 김사빈 엠마, 정아인 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익용 베네딕토 · 부회장: 엄기용 안토니오 ·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4년 12월 8일 (자) 대림 제 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1독서 (바룩서 5,1-9)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2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걸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써라.

3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4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5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네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6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7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
 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8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9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1,4-6.8-11)

형제 여러분, 나는
 4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5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8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9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10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
 람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
 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루카 3,1-6)

1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

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라이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2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3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4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5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6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 힘을 주시어,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 길을 곧게 내라고 외친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2. 인권 주일을 맞아,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저희를 굽어살피시어, 저희가 편견과 차
 별을 허물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데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경제 발전으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도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굽어살
 피시어, 건강을 지켜 주시고, 모든 이가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힘을 모으고 나
 눴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사회 교리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사
 회 교리에 비추어 현실을 성찰하고 판단하며 정의로운 본당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즐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